

70년대 간호사업의 평가 및 80년대의 과제

대한간호학회

하 영 수
(대한간호학회 회장)

현대 사회는 고도로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간호학도 질적으로 향상되고 굳건한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독자적인 전문간호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간호학제도 고도의 전문화와 함께 적극적인 학술활동이 촉구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은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1955년 정규대학 간호교육과정의 시작됨과 동시에 간호의 학문적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학사 출신 간호원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 학회의 필요성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과 더불어 대한간호학회는 1970년 4월 18일 제38회 대한간호협회 정기총회에서 산하단체 자격으로 발족되었다. 발기총회에서 간호학회의 퇴직심의회와 임원선거를 가졌다(초대 회장으로 당시 서울의대 간호학과 이귀향 교수를 선출).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에서의 간호학도 다른 전문 직업과 같은 수준에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 9월 29일에는 한국과학 기술단체 총연합회에 정식 등록을 했으며 동년 10월 29일에는 제 1회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간호

학의 발전과 학구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학회를 통한 보다 활발한 학술연구 논문의 발표와 학술 교류를 위해 1970년 12월 20일에는 11편의 논문을 게재한 “간호학회지” 제 1호를 발행하였다.

학회활동을 여러모로 확대하고 그 의의를 확인하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인 분야별 간호 학술활동을 위해 분과학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였고 (1971년 6월 25일) 내외과 간호, 산소아과 간호, 보건의호, 정신과 간호, 간호사회 분과학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아직 학술활동을 위한 체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던 초창기 학회는 1973년 5월 10일 제 3회 정기총회를 맞아 보다 활발한 학회 활동을 기하고 학회를 본 계도에 올려 놓기 위해 학회를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에서 분리하여 독립단체로 운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학회는 독립된 자체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간호학회는 운영체제를 재정비, 확대하였고 대내외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새로운 학회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하영수교수를 선출). 동년 10월에는 협회에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간호연구의 실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제 1회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또, 1975년에는 평생회원제도를 실시하기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제도를 통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회의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함으로써 학회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회의 연륜이 짧았으므로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조직, 운영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계획된 중요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6년부터는 학회가 사회 여러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 학회지 발간을 위한 일정한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산학협동재단, UNICEF 등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1976년에 비해 회원의 확보면에 있어서나 재정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원활한 학회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문과 윤리”라는 주제를 내걸고 올바른 간호수행을 중시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계기와 전국 간호대학 및 간호전문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신체검진을 위한 워크샵(2일간 실시) 및 “미국의 간호방향”(Adams박사), “미국의 간호교육과 연구의 최근 경향”(이미자 박사)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의 전개와 국제교류를 위한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분과학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분과학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과학회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그러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의간호분과학회와 간호사회 분과학회는 총회 결의에 의거, 각각 지역사회 간호분과 학회, 간호행정 분과학회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고 회원의 확보와 학술활동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78년 대한간호학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방법 워크샵” “간호연구 논문평가”를 위한 워크샵”등을 지방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다.

1979년은 학회 주요사업은 간호학의 최근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학술교류와 분과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월례학술 집담회를 시도하였다. 특히 제1회 월례학술 집담회에서는 “기본간호학 교육의 최근 동향”에 대한 특별 강연과(DuGas박사) 기초간호학 교과과정에 대한 집단토의를 가졌다. 또한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 향상을 위해 주역을 맡고 있는 “조산수습과정 지도자 강습회”를 보사부 후원으로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였다. 더우기 지방회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간호연구방법의 과학화”란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가졌으며 간호를 과학으로 증명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해였다. 간호학 자습서가 일부 출판되었고 전년도에 이어 대한간호 지면보수 교육난을 접필하여 회원간의 학술교류에 노력했다.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회원확보와 학회지 발간기금을 조정하는 기틀을 마련한 해였기도 하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한간호학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간호계의 학문적 측면에서의 구심적인 존재가 되기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부 부회원에 제한되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으며 연구활동에의 참여가 일부 회원들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현재까지 학회지에 논문게재자의 배경을 고찰해 보면 대부분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회원들이며 일반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은 극히 소수일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암암리에 연구활동이란 교육가나 행정가들만의 소관이고 실무자인 간호원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잔재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모든 분야의 간호원들이 학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연구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간호는 응용과학으로 간호의 지식은 실제에 연결되어야 하며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지한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전하고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업무가 향상하는 순

환적인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올해는 8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대한간호학회 제 9회 정기총회를 “1980년도는 간호이론 정립의 해”로 주제를 정하면서 간호학 자체로서의 유일한 학문이 무엇이나 하는 개념을 체계화하며 간호학의 지식체계 형성에 선봉을 드는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도 학술사업의 첫 모임인 과학의 날 행사에 “간호이론 정립의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을 계획중에 있다. 또한 1980년의 학술사업은 모든 분과학회가 활발히 참여하는 모임으로 월례학술집담회와 지면 보수단 집필을 각 분과학회 주관으로 계획해 보았고 지난 해에 이어 지방회원을 위한 워크샵 및 간호학 문제 출제방법에 대한 워크샵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학회에서는 현재 교육계에만 편중해 있는 회원을 간호의 모든 분야에서 동참하도록 회원확보와 연구논문 발표기회를 손쉽게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학회지 발간기금 조성사업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어 또한

연구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회 자체의 연구구성비의 마련과 더불어 타 재단으로 부터의 지원을 통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간호학회는 모름지기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모임을 유치하는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간호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을 통해 연구하고 봉사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와 협회가 책임을 다하고 공동노력할 때 간호는 분명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본 대한간호학회는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 “간호학의 발전과 학구적인 연구에 관한 활동, 타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회원들의 연구, 발표, 토론하고 또 이를 자극하는 여러가지 학술사업을 계속 펼쳐나가 학문의 발전과 인간을 위한 봉사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수증간행물

- 「일차보건의료요원의 훈련 및 업무수행평가연찬회 결과보고」 한국보건개발연구원
- 「1978년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KIFP
- 「저출생체증아에 대한 선천매독의 임상적 고찰」 이강오(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종합병원 간호인력의 적정기준에 관한 고찰」 이선혜(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출판문화」 통권 173호~175호(2월호~4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 「한국간호관계법령에 대한 조사연구」 이영자(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 「看護技術」 Vol. 26, No. 4, 5(3월호, 4월호) 日本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Their Plan-

- ning, Operation and Evaluation, 1979, INFJ
-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27, No.1(12월호)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ing
- Nursing 80, Vol. 10, No. 2~3(2월호, 3월호)
- The Australian Nurses Journal, Vol. 9, No. 7, 8(2월호, 3월호)
- The Canadian Nurse, Vol. 76, No. 3,4(3월호, 4월호)
- The Hong Kong Nursing Journal, 통권 27호(11월호)
- World Health(1월호) WHO